■ 'IT농활' 새 트렌드 '동강대 IT농활단'의 하루

'어르신 학생' 컴퓨터 가르치며 마을 정보화 도우미 '톡톡'

농약치기·김매기·담쌓기 대신 PC 고치고 마을홍보 '구슬땀'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농활)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김매기· 풀베기· 담쌓기·농약치기 등 '재래식 농활'에서 컴퓨터 수리와 인터넷 교육 등 'IT농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오후 2시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3구 방축마을 마을정보센터 2층. '동강대 IT농활단'의 컴퓨터 수업이 한창이었다. 25평 남짓한 이 곳에는 컴퓨터 12대와 빔프로젝터 1대가 갖춰져 있었다.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해 에어컨도 설치돼 있었다.

학생들은 이 마을 주민들. 적게는 40대 중년에서 많게는 70대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다양했다.

"모니터에 나와있는 그림 보이시죠? 손가락 그림을 보면서 따라 쳐보세요."

팀장인 김창성(24·동강대 컴퓨터 인터넷 계열 2년)씨가 '한글타자연습' 프로그램으로 자판 익히기 교육을 시작했다.

나이 든 학생들의 서툰 손놀림이 시작됐다. 다들 왼손과 오른손 검지 끝에 힘을 주고, 화면과 자판을 번갈아 보며 한 자씩 천천히 입력했다. 5분도 채 안됐을 무렵.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했다.

"여기 와서 좀 봐줘. 'ㅠ'자가 안 보여. 내 자판이 이상한 겨?" 김천식(62)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대기 중이던 이충훈(24·동강대 컴퓨터 인터넷 계열 2년)씨가 달려갔다. "여기 밑에 긴 막대기 보이시죠? 바로 위에 보시면 'ㅠ'자가 있죠?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같은 학과 2학년 동기로 구성된 동강대 IT 농활단원 6명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2명씩 조를 짜 컴퓨터 수리·교육전담·마을홍보용 플래시 물 제작 등 3개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해왔다.

컴퓨터 수리팀은 컴퓨터가 있는 집을 방문, 모두 20여대의 컴퓨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부팅장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줬다.

교육전담팀은 마을정보센터에서의 단체교육과 직접 방문 교육을 병행해가며 자판 익히기·인터넷 활용하기·메일 보내기 등 기초적인 것부터 포토샵까지 다양한 교육을 했다.

마을홍보용 플래시 물 제작팀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3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다. 고즈넉한 마을 풍경, 시원스런 정자가 있는 우물, 그리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진에 담겼다. 완성된 플래시는 마을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됐다.

IT농활단 서영태(24)씨는 "농활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신청(청장 고광섭)이 발족한 이번 '내 고향 IT농활단'에는 광주·전남 대학생 20개팀 119명이 참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동안 나주 등 9개 시·군 20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동강대 IT 농활단(팀장 김창성)이 지난 14일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3구 방축마을 마을복지회관 2층 정보센터에서 주민 10여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서술형' 취약

수학 일부 문제 90%이상이 0점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서술형 수학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공대와 자연대, 농생대 등 2006년도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일부 서술형 문제에서 전체 응시자의 90% 이상이 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단답형 문제는 서술형보다 점수가 훨씬 좋아 수능 등 정답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학력평가 제도가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치른 수학성취도 평가에서 응시자 532명 중 서술형 9번과 7번 문제에서 0점을 받은 학생은 무려 500명(93.9%)과 402명(75.5%)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는 모두 7문제가 출제됐는데 전체 평균은 40.66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올해 2월 정시 합격생 752명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서술형 12번은 676명(90%)이 0점을 받았고 11(나)번은 611명(81.2%)이 0점 처리됐다. 평균은 43.72점(100점 만점)이었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단답형 문제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수시 모집의 단답형 1번은 평균 점수가 93.72점(100점 만점)이 나왔고 5번 89.47점, 6번 81.39점 등 평균 70.57점이었다.

정시 모집도 단답형 1번과 2번이 각각 92.35점과 97.16점을 기록하는 등 평균 75.82점으로 서술형 평균(43.72점)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전남운동본부 19일부터

전남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전남도의회·도교육위원회·광주·전남교육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전남교육운동본부)에 따르면 농산어촌을 특별교육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교육진흥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남교육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19일 나주시 중앙로에서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범도민 20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다음달께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운동본부는 "농산어촌의 노령화와 학생 수 급감, 도시·농산어촌 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이 농산어촌의 교육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농산어촌을 특별교육지역으로 지정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교육운동본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해 현행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30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 전액'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고차 수출면장 발급과정 개선

광주세관 '불법차' 대책

불법 자동차 100억원대 수출 사기사건〈본보 7월 14일 7면〉과 관련, 관세청은 현행 중고차의 수출면장(輸出免狀) 발급 과정을 검토해 허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 완납 여부는 개인과 자동차사 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세관의 수출신고 수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현 체제에서는 사기단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서 "본청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세관은 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교부해주는 부가세 환급은 관세청이 아닌 국세청 소관"이라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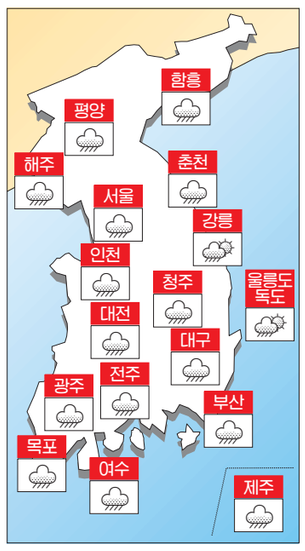
물폭탄 '조심'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오겠다.

7월 17일 (음 6월 22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번개	23~25℃
목 포	흐리고 비, 번개	23~25℃
여 수	흐리고 비, 번개	23~25℃
완 도	흐리고 비, 번개	23~25℃
구 례	흐리고 비, 번개	23~25℃
해 남	흐리고 비, 번개	23~25℃
장 흥	흐리고 비, 번개	23~25℃
고 흥	흐리고 비, 번개	23~25℃
순 천	흐리고 비, 번개	23~25℃
영 광	흐리고 비, 번개	23~25℃
진 도	흐리고 비, 번개	23~25℃
전 주	흐리고 비, 번개	24~26℃
남 원	흐리고 비, 번개	23~25℃
정 읍	흐리고 비, 번개	24~2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6:47 19:20 썰물〈 12:00 --:--
여 수 밀물〈 01:16 13:55 썰물〈 07:37 19:47

▲해뜸 05:30 ▲해짐 19:46 ▲달뜸 23:41 ▲달짐 12: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 씨						
최저/최고	23/27	23/27	22/28	23/29	23/29	23/29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지시 김인옥경무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6일 수배자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인옥(53·경무관) 울산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3)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여·40)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김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강 전 경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면허증을 만들어주라는 뜻을 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동료 경찰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으나 김 차장은 따로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학생 10명중 8~9명 혼전 성관계 개방적

호남 출신 29% "무조건 반대" 가장 보수적

대학생 10명 중 8~9명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 호남 출신 대학생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성 의식'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사회학과 조사실습팀이 경북대·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전북대·한림대 등 6개 대학생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4.5%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답했다.

반면 52.5%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 27.5%는 '결혼을 약속했다면 무방하다'고 말했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라는 응답도 5.4%가 나왔다.

출신 고교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신자의 28.6%가 혼전 성관계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가장 보수적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이 비율이 7.1%에 지나지 않았다.

성관계 경험자 중에서는 전체의 75.7%, 남학생의 70.4%, 여학생의 86.2%가 '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으며, 이성 친구·동료·선후배와 첫 성관계를 가진 비율은 남학생 16.5%, 여학생 10.3%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